

앱셀러레이터 타이타니움을 이용한 앱개발 그 첫 경험



이 포스팅을 막 하려던 찰나, 늦은 사랑에 중독되어 만사를 제쳐두고
햄북는 시간들을 흘려 보낸지도 벌써 한 달째 접어들었군요. 이제서야
이리저리 흩뿌려 놓았던 정신줄들을 긁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; 앱셀러레이터 타이타니움(Appcelerator
Titanium, 이하 타이타니움)을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첫

경험을 이곳에 정리합니다. 타이타니움의 특징은 [이전 포스트](#)를 참고하세요. 개발도구의 설치방법이나 사용방법 그리고 그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



Tab Groups >

Window Properties >

Window Layout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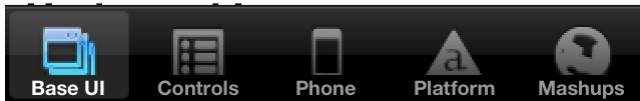
Window (Standalone) >

Views >

Custom Events >

Window Events >

Vertical Layout >



개발하는 것 자체를 도모하기 위한 글이니깐요.

초심자에게는 [키친싱크\(KitchenSink\)](#) 데모를 프로젝트에 등록하여

빌드하고 실행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할 것을 권장합니다. 타이타니움이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능이 이곳에 담겨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데모로서 분명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.

사실, [앱셀러레이터 홈페이지](#)를 둘러보면서 다소 신빙성 없이 과장해 놓았다는 느낌을 받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왔었드랬습니다만, 막상 사용해 보고 사이트를 어보면서 [앱테나\(Aptana\)](#)를 인수하기 전의 콘텐츠와 후의 콘텐츠가 혼재되어 있고 아직도 비지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들은 아직도 진화중인 듯하여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

타이타니움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서 든 느낌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, 커다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 을 사용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. DOM 스크립팅을 이해하는 대신에 랩핑 API를 습득하여 기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크로스-브라우저 이슈를 자바스크립트로 해결하는 것과 같이 벤더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기초적인 내용은 [개발문서를 참조](#)하기 바라며,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재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.

관련글:

- [앱셀러레이터 타이타니움을 이용한 앱개발 - 변수 전달](#)
- [앱셀러레이터 타이타니움을 이용한 앱개발 - 아이콘](#)
- [iOS 디바이스별 화면 구성요소 치수들](#)